

KIA 반전드라마 이번 주인공은 '스틴슨'



스틴슨

프로야구, 주중 SK·주말 KT 원정 스티슨→임기준→임준혁 선발 시험 한승혁·김진우 1군 진입 카운트 다운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가 내구성을 시험받는다. 개막 2연전에서 기본 총계 2승을 챙긴 KIA 타이거즈가 원정길에 오른다. 그라운드로 복귀한 감독들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 SK 와이번스, kt 위즈와의 경기가 펼쳐진다. 개막 2연전에서 1승1패를 거둔 SK의 김용희 감독은 차포를 더하고 KIA를 기다리고 있다. 에이스 김광현이 31일 선발로 나서고 야수 FA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최정이가 부상에서 회복, KIA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른다. kt 조병현 감독도 친정팀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막내 kt는 개막 2연전에서 롯데에게 2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힘을 과시했다. ‘친정팀’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 지난 2013년 트레이드를 통해 KIA를 떠난 김상현과 올 시즌 20인 외 특별 지명으로 1년 만에 고향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이대형이 친정 마운드를 겨냥한다. KIA는 필이 연출한 역전극의 여운을 안고 마운드 시험을 받기 위해 원정길에 나선다. 개막 2연전에서 마운드 총력전을 전개한 KIA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마운드 틀 잡기에 나선다. 스티슨을 시작으로 ‘임듀오’ 임기준-임준혁의 선발 도전 무대가



임준혁



임기준

마을 오른다. 개막 총력전을 위해 엔트리에서 빠져있던 석석한 신인 문경찬도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다. 몸을 풀 양현중-함버의 두 번째 출격도 준비된다. 개막 2연전 원투펀치로 나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좌완 에이스 양현중은 2015시즌 첫 등판에서 6이닝 5피안타 4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예년보다 시즌 준비가 전천후 이뤄지면서 첫 등판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야수진의 든든한 지원 속에 스타트를 잘 끊었다. 함버의 한국 데뷔전도 나쁘지는 않았다. 4이닝 5피

안타 2사사구 4탈삼진 2실점이 함버의 첫 기록. 두 차례 부상으로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 4.1이닝 만을 소화했던 것을 감안해 많은 이닝을 맡기지는 않았다. 80개의 투구수를 정하고 등판했던 함버는 첫 등판을 84개, 4이닝으로 무난하게 소화했다. 144경기의 장기레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2군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운드 준비가 이뤄진다. 옆구리 부상으로 주춤했던 한승혁이 31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개막전에 나서 2015시즌을 위한 재가동에 들어간다. 장아리 부상으로 쉬어갔던 김진우도 4월1일 마운드에 올라 1군 진입을 위해 시동을 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폭발’ 강정호

시범경기 애틀랜타전 역전 홈런·결승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두 번째 홈런을 터뜨리고 3타점을 수확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강정호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챔피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6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2-2로 맞선 9회 1사 2루에서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큼지막한 2점포를 터뜨렸다. 지난 3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 우중월 솔로아치를 그린 이래 두 번째 홈런이다. 그는 1-1이던 7회에는 중전 적시타를 날려 타점을 올렸다. 경기가 피츠버그의 4-2 승리로 끝나면서 역전타와 결승타를 거푸 친 강정호는 승리 일등공신이 됐다. 비록 시범경기지만 저조한 타격으로 지역 언론의 굵지 않은 눈초를 받아온 강정호는 이날 맹타로 우려를 말끔히 씻음과 동시에 거포의 존재감을 한껏 뽐냈다. 이날 4타수 2안타로 3타점을 거둬들인 강정호는 시범경기 첫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와 첫 멀티 타점(한 경기 타점 2개 이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2회와 5회 각각 중견수 뜬공,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7회 찬스에서 기다리던 한 방을 날렸다. /연합뉴스



‘킴백’ 추신수

외야수 복귀 1타점·1득점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외야수비로 복귀해 안타와 타점을 만들어냈다. 추신수는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석 2타수 1안타 1볼넷에 1타점과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그간 왼쪽 팔 삼근도 통증 때문에 줄곧 지명타자로만 나서다가 이날 외야 수비로 나섰다. 추신수는 1회초 무사 1루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적시타가 나왔다. 추신수는 3회초 1사 2루에서 매카시의 두 번째 공을 우전 안타로 연결, 2루 주자 레오니스 마르틴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다음 타자 애드리안 벨트레를 상대하던 매카시가 폭투를 던진 틈을 타 추신수는 2루까지 진출했다. 이어 벨트레가 중견수 방면 2루타를 날리자 추신수는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5회말 수비부터 카를로스 페게로와 교체됐다. 추신수의 시범경기 타율은 전날 0.167에서 0.188(3타수 6안타)로 올랐다. 이날 경기는 다저스가 10-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차두리, 오늘밤 태극마크 마침표

축구대표팀 뉴질랜드와 평가전...차두리 은퇴 경기

우즈베키스탄전에서 힘 빠진 모습을 보여줬던 슈틸리케가 약체 뉴질랜드를 상대로 화끈한 골 진지를 벌일 수 있을까.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뉴질랜드와 맞붙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4위 뉴질랜드는 56위 한국과 체급 차이가 꽤 나는 팀이다. 호주가 2006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편입한 뒤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에서 최강 지위를 굳건히 지켜 왔으나 대륙 밖 상대들에게는 승리를 거둔 적이 드물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다섯 차례 평가전을 치러 2무 3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선수 대부분이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해외파는 8명인데 대부분이 2~3부 리그 팀 소속이다. 프랑스 리그앙(1부 리그)의 강호 마르세유에서 뛰는 빌 킬로라 정도가 눈에 띈다. 수비형 미드필더나 측면 수비수로 뛰는 그는 지난

2013년 18살의 나이에 마르세유에 입단한 기대주다. 지난달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상대가 약체라는 점은 강팀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되살아난 축구 열기를 이어가야 하는 슈틸리케호에게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 속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손흥민(레버쿠젠)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호주 아시안컵부터 소속팀 정규리그까지 고된 일정 속에 힘이 빠진 탓이었다. 무엇보다도 막내로 참가한 2002 한·일 월드컵부터 10여년간 대표팀에 봉사해온 차두리(FC서울)의 은퇴 경기라는 점은 후배들이 쾌승을 거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장도를 앞둔 태극전사들이 차두리와 팬들에게 안방에서 큰 웃음을 안기고 길을 떠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축구대표팀 훈련 전 차두리가 손흥민, 김주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표팀은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